

대청호(옥천)골프장 예정부지 생태조사 결과 및 제언서

- 조사 일시 : 2023년 6월 22일 8시 ~ 12시
- 조사 범위 : 옥천골프장 계획부지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대)
- 조사 기관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및 외부자문단
 -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 김종남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재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상명 (전)국립중앙과학관 식물박사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안재 전 옥천신문사 대표
 - 정상민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연구원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황재현 아생화 사진작가
 - 홍영표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이사
- 조사 대상 :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식물식생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옥천골프장 계획에 따른 생태조사 결과 및 제언

■ 작성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배 경	<p>(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450여만 충청인의 공동우물인 대청호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하류거버넌스로서 상수원 수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발계획이 산발적으로 수립, 집행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p> <p>11년전 문제가 돼 백지화된 옥천골프장 건설계획의 재등장은 인구감소와 함께 극한 가뭄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청호의 현재와 미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p> <p>특히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대청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360여만 충청시민들의 견해는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옥천지역시민사회를 비롯한 충청지역 시민사회의 우려가 큼</p> <p>이러한 지역 시민사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우리단체는 전문가 생태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부지는 골프장으로 토지이용이 변경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p> <p>단 한 차례의 조사로 확인된 계획부지 현장생태계의 우수성과 지리경관적 아름다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양식 변화 등을 고려해 제3의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함.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청호상수원보호와 관련된 충청도민의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p> <p>●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정책연구위원회 및 외부자문단 생태조사팀 15명은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8시부터 옥천골프장 계획부지(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산56번지 일대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분야별 종합의견을 취합한 가운데 생태조사결과 및 우려되는 사항 등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하오니, 각 기관별 생태조사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회신바랍니다.</p>
조사결과	<p>1) 조류</p> <p>: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청음 확인됨(서식이 확인된 지점의 좌표 36°18'18" / 127°38'23"). 각기 다른 장소에서 2개체의 울음소리가 들림에 따라 2개체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됨</p> <p>: 번식동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현재 시기(6월)는 팔색조가 포란 및 육추하는 시기로 2개체 이상 서식 확인으로 번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짝짓기 시기인 5월에 집중조사가 필요함)</p> <p>: 사업지구는 계곡부 지면이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어 팔색조의 주 먹이원인 지렁이류가 서식하기에 알맞아 주 먹이터로 이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p> <p>: 그 외에도 사업지구 상공에 새호리기 1개체가 확인됨에 따라 다양한 멸종위기</p>

여름철새가 해당지구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의 관찰 및 현장 조사자료(2023. 5. 30)에 의하면 수리부엉이가 사업지구 인근지역에 서식한다고 되어있는데, 골프장의 야간조명은 야행성 조류인 수리부엉이의 사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하루 조사를 통해 29종의 많은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산새들의 중요한 번식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조류 29종 217개체 - 검은등빠꾸기(1), 흰배지빠꾸(7), 되지빠꾸(15), 직박구리(35), 밀화부리(6), 칩때까치(4), 평(5), 빠꾸기(2), 멧비둘기(27), 때까치(3), 노랑턱멧새(9), 노랑할미새(2), 오색딱다구리(2), 동고비(3), 쇠딱다구리(3), 박새(16), 흰눈썹황금새(1), 붉은머리오목눈이(23), 큰부리까마귀(6), 물까치(4), 어치(2), 피꼬리(2), 오목눈이(4), 딱새(2), 참새(28), 파랑새(2), 팔색조(2), 새호리기(1)

: 멸종위기야생생물 - 팔색조, 수리부엉이, 새호리기

: 소쩍새 울음소리 녹음



수리부엉이



팔색조



새호리기

2) 포유류

: 멸종위기 2급 살의 배설물 확인(좌표 36'18'18 / 127'38'19)

: 멸종위기 2급 하늘다람쥐 등지 2개 확인(좌표 (36'18'12 /127'38'21, 36'18'14 / 127'38'25))

3) 양서파충류

: 사업지구는 계곡부는 대부분 건천으로 양서류가 살기에는 부적합(무당개구리, 두꺼지 서식만 확인됨)

: 사업지구 진입로변 둅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인 맹꽍이의 청음이 확인되었음. 맹꽍이는 미소서식지를 이용하는 종으로 해당 둅병이 파괴되거나 오염물질 유입시 생존이 어려워짐



애기뿔소똥구리

4) 곤충류

: 멸종위기2급 애기뿔소똥구리 확인

: 애기뿔소똥구리(3), 장수풍뎅이(5), 넓적사슴벌레(19), 톱사슴벌레(4), 넓적송장벌레(7), 왕풍뎅이(8), 밝은줄풍뎅이(4), 왕빛살방아벌레(16), 하늘소종류, 바구미종류

	<p>5) 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 지양리에서 석탄리, 수북리까지 대청호 유입지류로 생활하수 및 골프장의 시설과 관리상 수질 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임 ; 유량 : 집수역이 크지 않은 편으로 갈수기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적음 ; 잉어과 버들치(205), 큰납지리(200), 피라미(180), 참붕어(3), 끄리(1)등 5종, 동사리와 얼룩동사리(19) 1종, 망둑어과 밀어(7) 1종, 미꾸리과 미꾸리(1) 1종으로 총 4과 8 종 확인 ; 고유종은 얼룩동사리 1종, 법적보호종 확인되지 않음 ; 집수역이 적고 상부 지역에 경작지와 주민들로 인해 상당량의 지하수가 사용됨으로서 이에 의한 지하수위의 감소로 유량이 적은 편이며, 소형의 보가 많아 하상은 모래와 펄이 주를 이룸. 이에 따라 사계절 유황이 일정치 않아 일반적인 계곡 하천의 특징을 보여주지 못함. 대청호와의 연결부에 수생식물인 정수식물이 발달되어 있어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상당량의 유기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대청호의 수질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동절기 전에는 정수식물을 제거함으로써 대청호내에 유기물 유입을 차단하도록 해야 함 <p>6) 식물식생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산의 남북능선 40m의 서사면으로 경사가 심함. 2차 천이 초기단계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임. 안정된 숲을 이루기까지 50여년 이상 걸려 식물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나 자연재해로부터 지형을 보호해주는 숲을 난개발하지 않기를 바램. 보다 철저한 생태계조사가 요구되며 보존관리방안이 필요함 ; 경작지주변 - 부들, 애기부들, 물닭개비, 개구리밥, 수원고랭이, 미나리, 고마리 ; 과수원 등 가장자리 : 개망초, 미국자리공, 귀리 ; 주변 식재지 - 아까시나무, 리기다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담쟁이덩굴, 파리풀, 까마귀밥여름나무, 대사초, 단풍박쥐나무, 노간주나무, 선밀나물, 진달래, 노박덩굴, 각시둥굴레 ; 산 상부 - 소나무, 신갈나무군락, 둥굴레, 그늘사초, 털진달래, 산철쭉, 잣
<p>주민의견 청취</p>	<p>지양리 주민의 초고령화와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유지의 한계. 달라진 환경에서 재개되는 골프장건설계획인데 주민의견수렴 없이 11년 전 골프장 조성업체와 맺은 토지매입계약으로 골프장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업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토지매입가에 대해 강한 이견을 표출함</p>
<p>제언</p>	<p>1) 지양리의 역사문화, 인문학적 가치 보전 및 계승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이면 석탄리, 남곡리, 지양리(지장1리,2리) 일대는 옥천군내 선사문화가 형성된 주요 지역. 안터1호 고인돌과 선돌, 동정리 줄무늬선돌, 오대리 고인돌 등은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선사문화권. 특히 지양리 골프

- 장 계획부지내 고인돌, 선돌 2기 존재. 삼국시대 성터(오봉산성) 존재함
- 지양리 일대는 동이면 청마리와 청성, 청산지역에서 고개를 넘어 옥천읍으로 향했던 지름길에 위치. 말티재를 넘어 계획부지를 통과해 옥천읍으로 향했던 근현대 길이 골프장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함.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국가 생태관광지구로 묶인 마을들의 인문학적 가치가 상실되는 위기를 겪게됨과 동시에 옛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서린 향수어린 길이 차단되어 맥이 끊길 우려

2) 자연환경보전 필요성 확인 위해 정밀한 현장조사 요구

- 국가생태관광지역이자 축사와 주민생활오염 외 오염원이 없는 대청호 수변구역에 대기오염과 토양, 수질오염을 크게 유발하는 대규모 골프장 건설은 타당하지 않음
- 골프장 계획지구 내부 지역의 숲과 골짜기가 울창하고 다양한 생물 종 서식에 유리해 숲 생태계 보전 필요. 특히, 수리부엉이, 팔색조, 새호리기, 하늘다람쥐, 독수리, 수리부엉이, 삿, 담비, 애기뿔소뿔구리 등의 조류와 포유류, 곤충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서식처와 서식환경보전 위해 골프장 입지는 타당하지 않음
- 그러므로 각 분야별 시기별 정밀한 생태환경조사가 시급히 요구됨

3) 골프장 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재검토 필요

- 골프장 계획부지가 마을과 매우 인접하고 마을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므로 골프장의 야간 조명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게 분명함
- 주변지역의 농작물에도 악영향을 줄뿐더러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 인근 숲지대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

4)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함이 바람직

- 골프장예정지는 충청도민의 공동우물인 대청호에서 불과 500~700m 이격한 상류지역에 위치함. 예정지 일대는 비교적 급경사의 사면으로 정상부에서는 옥천 시내와 대전의 식장산, 만인산이 조망됨
- 정상부 언덕을 통해 지양리에서 청마리, 조령리로 넘어가는 도로는 대청호둘레길을 걷는 트레킹코스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5) 개방적 분지지형과 생태경관미를 살리며 주민이 만족하는 생태환경적 대안 마련 필요

- 대청호변을 걷는 향수길 외 옥천을 대표할 산악트레킹루트로 발전가능성 있고, 곰배령이나 함백산 야생화단지처럼 아름다운 정원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생태경관여행단지 등을 권고함